

전남도, 세계적 경기 불황 속 농수산물 수출 호조

올해 1분기, 지난해 동기 비해 3.1% ↑ 1억4천만달러 기록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매장 등 수출 경쟁력 제고 따른 성과

전남도는 고환율 등 세계적 경기 불황 속에서 올해 1분기 전남 농수산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1억 4천518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수출 호조는 전남도가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 판매장 운영과 수출직불금

지원사업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에 따른 것이라 분석했다.

수출 호조세가 돋보이는 품목은 배, 유자차, 분유, 전복, 미역, 톳, 멸치 등이다.

신선 농산물인 배는 미국, 베트남 등 수출로 지난해보다 120% 증가한 329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버섯류는 53.4% 증가한 76만 달러로

집계됐다.

농산가공품 분야에선 한국산 유자가 피부 미용에 좋다는 인식 확산으로 유자차가 지난해보다 16.4% 증가한 761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과자류는 119.4% 증가한 289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 한국 분유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난해보다 44.5% 증가한 1천242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밖에 전복은 4.6%, 미역은 42.4%, 톳은 18.1%, 멸치는 379%가 각각 늘었다. 반면 김이 6.7% 소폭 감소했으나 미국발 비관세 장벽 해소로 향후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수출 국가별로 러시아는 63.7%, 중국은 43.9%, 일본은 16.6%로 늘어난 반면 미국은 47.2%, 대만은 6.6% 줄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오프라인 상설 판매장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통해 지속해서 수출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농수산물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출 기반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 음식의 본류라 할 수 있는 남도음식의 세계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올해 초등교사 임용대기

2081명...작년보다 더 늘어

학생 수·학교 가장 많은 경기에서만 942명

교육부가 신규 초등교사 선발 규모 감축 방안을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올해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배치 받지 못한 교사 수가 더 늘었다.

23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공립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임용대기자는 총 2081명으로, 전년도 3월 (1915명) 대비 166명(8.7%) 늘었다.

학생 수와 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에서만 942명의 신규 초등교사 합격자가 임용 대기 상태에 놓였다. 또 ▲경북 180명 ▲인천 149명 ▲전남 132명 ▲서울 119명 ▲경남 108명 등 시도에서 100명을 넘었다.

이어 ▲충북 87명 ▲강원 75명 ▲충남 54명 ▲울산 51명 ▲전북 45명 ▲제주 44명 ▲세종 40명 ▲대구 28명 ▲대전 10명 ▲부산 9명 ▲광주 8명 순이다.

울산은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51명으로 3배 넘게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임용대기자를 모두 학교에 배치시켰지만 문제는 1년 넘게 대기자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서울(119명)이 한 예로, 올해 합격자 114명과 전년도 합격자 5명이 배치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초등교사 임용대기자가 있었던 시도는 규모 순으로 ▲서울 186명 ▲경기 151명 ▲경남 100명 ▲세종 37명 ▲전남 24명 ▲충북 20명 ▲전북 12명 ▲강원 4명 ▲대전 3명 ▲광주 3명이었다. 총 10개 시도 540명으로 전년(1262명)대비 줄었다.

매년 임용시험 선발 규모는 각 교육청이 정하지만, 교육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정규 교원 규모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올해 공립 초등교사 정원이 전년 대비 1136명 줄었고, 이는 2022년도 감축분에 비해 5배 더 많았다.

정원이 줄어드는 만큼 시도교육청도 매년 소규모 학교 폐교, 신도시 과밀학급 증가라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도 신규 임용교사 선발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매년 줄여 나가겠다는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가 임박하며 교육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김재환 기자

함평군 “순금 162kg ‘황금박쥐’ 보러 오세요”

140억원 육박...28일 개막 제25회 나비대축제 기간 일반에 공개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남 함평군 황금박쥐상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함평군은 “오는 28일 개막하는 제25회 나비대축제 기간에 맞춰 황금박쥐생태전시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황금박쥐생태전시관에는 지난 2005년 28억원을 들여 순금 162kg과 은 281kg으로 만든 황금박쥐상이 전시돼 있다.

황금박쥐상은 한반도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황금박쥐가 1999년 대동면에서 무더기로 발견 되자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서식지 희소성을 활용한 ‘생태함평’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만들어졌다.

460kg에 육박하는 황금박쥐상은 원형의 조형물 안에 황금박쥐 5마리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황금박쥐상의 현재 시세가 약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황금박쥐상을 만들고 남은 재료를 활용해 난생신화를 근거로 만든 황금박쥐 오복포란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황금박쥐상이 오랜만에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새단장을 하고 있다”며 “나비대축제 기간 많은 관람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금박쥐생태전시관은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 건너편 화양근린공원(함평읍 곤재로 36-13)에 위치해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식약처 “국민 안전에 타협 없다”...일본산, 이번주만 600건 점검

위킴 A씨는 최근 근심이 깊다. 일본 정부가 올 여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다는 소식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산물을 유독 좋아하는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원산지를 더욱 꼼꼼하게 따져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근심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횃집을 운영하는 B씨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B씨는 국산, 중국산 등을 들여오고 있지만, 일본산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나면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같은 국민의 우려를 인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것에도 타협할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식약처가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

능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식약처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간 647건 검사를 진행했다”며 “3주간 총 1746건을 검사했다”고 말했다. 이는 하루 약 120건, 일주일에 약 600건 규모다.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철저해졌다는 점에서 외국과 다르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한 인근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금지 조치 하고 있다. 수입규제 이전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일본 미야기현 멧개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

일본산 농산물은 앞에서 언급한 8개현을 포함해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등 총 15개현에서 생산하는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금지를 하고 있다.

수입금지 품목을 제외한 다른 일본산 식품들도 식약처의 검사를 거쳐야만 국내로 수입될 수 있다. 식약처는 매년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년 검사 및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 등을 통해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알림>

뉴시스 통신사 전산망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접속 오류로 호남신문 24일자는 12면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 THE RED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2023. 5. 20. ~ 29.